

가격과 가치의 불균형



신 세 철 역
쉬운 경제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생산과 유통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일이고 다음은 부가가치가 높아질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거두는 길이다. 실물상품의 효용가치 또는 희소가치는 주관적이어서 적정가치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는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가치와 가격이 변동하므로 객관적(내재)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이 같을 때 가격과 가치는 균형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본질가치를 크게 벗어나 상승해도 문제, 하락해도 경제질서를 교란한다. 가격은 외부 개입이 없는 투명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투자 대상 자산의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의 불균형이 확대되면 자

본이익(capital gain)의 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자본손실(capital loss) 위기가 도사린다. 가치 투자자들은 대체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을 때 상품을 확보했다가 시장가격이 본질가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익을 거둔다. 가치와 관계없이 시간차 또는 시장간 가격 차이 변동을 틈타 남다른 특별이익을 보려고 몰려다니다 오히려 특별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기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은 까닭이다.

효율적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이 동떨어져 일시적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반복되는 시장청산(market clearing) 과정을 거쳐 가치와 가격은 균형을 되찾아 간다. 시장에서 매수·매도 의견이 엇갈리며 균형을 이탈하다가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쉬지 않고 반복하며 적정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한다. 외부로부터 불확실성이 초래되어도 시장기능이 왜곡되지 않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스스로 충격을 극복해 간다. 앞으로 AI가 계속 발달하여 초능력이자 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져 사

고팔 필요가 없어진다. 시장이 무의미해지고 자본주의 경제는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가격과 가치의 불균형 사태의 원인은 크게 보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시장 심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초래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이다.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발생하기 쉽다. 다음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는 정부가 빚인가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부려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발생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기에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기 마련이다.

가격과 가치의 불균형이 한계를 벗어나면 위험과 불확실성을 잉태하다가 심해지면 경제위기로 진행되기 쉽다.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억누르는 것을 능사로 여기기가 쉽다는 점이다.

/경제칼럼니스트

헛소문에 흔들리지 말자, K칩



김 재 웅
(산업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거래 끊겠다 선언’ 충격적인 짜라시는 순식간에 온라인 공간을 달궜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신뢰를 잃고 HBM 협력도 중단한다는 내용, 실존 인물 이름까지 등장해 믿을 수 밖에 없게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 또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나쁜 짜라시였다. 엔비디아가 문제를 삼은 이유가 5년도 더 전에 양산했던 제품, 아직 생산을 하는 게 더 신기할법한 구세대에 사용하던 칩이다. 내부 사정을 아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포했거나, 사실이라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하는 모양새였다. 반도체 업계 이야기는 중국과 미국, 대

만에서 특히 많이 쏟아진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보도가 나오면 관련 부서 구성원 스마트폰을 모두 압수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보안이 철저하다.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알아도 모른척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반도체 업계 소식은 대부분 국내 업계, 특히 삼성전자에 부정적이다. 삼성전자 수율이 떨어졌다, 기술력이 뒤처졌다, 거래가 끊겼다는 등 당장이라도 망할 것같은 이야기가 많다. 국내에서조차 삼성전자 제품을 근거없이 낙인 찍어 불매를 유도하고 비슷한 해외 제품을 주저세우는 기묘한 광경까지 연출된다.

실제 확인해보면 대부분 사실과 정반대다. 여러 현직자 말을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최소한 메모리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지키고 있다. 깊이나 높이, 구조 등에서 경쟁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가 됐다. 웨이퍼 베벨 관리 등 다양한 노하우로 수율 확보에서도 충분히 ‘초격차’

를 벌렸다. 마이크론은 이제 경쟁 조차 되지 못할 정도, SK하이닉스만이 더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만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가 ‘눈엍가시’라서일테다. 반도체 업계 역사를 다룬 책이나 문헌을 보다보면 삼성전자를 마치 악덕 기업처럼 묘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강력한 경쟁자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성장한 삼성전자, 한국 반도체 산업을 낮춰보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해외 목소리를 그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쉽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하청국가로 남길 바라는 해외 경쟁사 및 헛소문들과 고군분투하는 상황, 우리만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렵지, 걱정스럽게 당부해본다.

/juk@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8일 (음 1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운에서 변화가 오는 시기이다. 48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는 날. 60년생 주변 사람과 의견 차이로 약간의 이견이. 72년생 재물의 기운이니 도전하라. 84년생 삼재발난이라 했으니 삼재 기도로 상체를 시켜보는 것도.
- 소** 37년생 과한 운동을 삼가고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 49년생 종일 기쁜 일이나 계획을 세워. 61년생 큰 그림을 그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73년생 게으르지 않으면 나쁜 부분이 제거된다. 85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온다.
- 호랑이** 38년생 내 것이 작아 보이나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50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62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주니 아랫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자. 74년생 강단 있게 진행하라. 86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신경 써라.
- 토끼** 39년생 같은 때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51년생 중심을 잘 세워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63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며 실속도 있고 이익이 있다. 75년생 조금은 둔감하게 살 필요가. 87년생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결과가 온다.
- 말** 40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니 감사하다. 52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도 외면하는 법. 64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76년생 열등감에 고민하지는 말도록. 88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달빛이 위로 주는 날.
- 뱀** 41년생 사공이 많아서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53년생 가족과 유례 상해한 날이다. 65년생 일이 어려우나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77년생 인내가 행복한 삶을 부른다. 89년생 가문에 탄비 오듯 착 풀린다.
- 양** 42년생 우물이 곁에 있어도 두레박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 54년생 배우자와 합의 늘 맞지 않는다. 66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본인이나 자신감을 느끼자. 78년생 예민함을 바래라. 90년생 남자 친구와 이별에 그리 아쉬워할 일은 아니다.
- 닭** 43년생 상대의 단점을 막막하면 나에게 돌아온다. 55년생 과거 신분적 사회에서 배운 기술을 이어받아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67년생 기회가 오니 잘 잡자. 79년생 남보다 못한 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91년생 하루가 즐겁다.
- 원숭이** 4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날이니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히. 56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자재. 68년생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 80년생 꽃은 저절로 피지 않는다. 92년생 힘이라도 끝까지 살려보아 결과가 좋다.
- 닭** 45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저주는 것도 한 방법. 57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른다. 69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전이 필요. 81년생 창업은 하되 신중히 계획. 93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라.
- 개** 46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확 커질 수 있으니 주의. 58년생 소통도 사람을 바가며 따라야 한다. 70년생 손님이 오니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오느라. 82년생 항상 운이 좋을 수는 없을 것. 94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려운 하루.
- 돼지** 47년생 무거운 일을 맡았어도 보람 있다. 59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서 일을 추진해라. 71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83년생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95년생 현대사회도 과거에도 그렇듯이 무속인은 직업이다.



김상회의四季 유병장수

질병의 고통 없이 나름의 무병장수는 모든 사람의 꿈일 거다. 그와는 좀 다르게 몸에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 어느날 월광사 신도중 50대 중반 K는 암 투병을 했다.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항상 조심하고 조심한다. 병원에 있으면서 K는 보양삼매론을 떠올렸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보양삼매론의 한 구절을 가슴에 품으면서 질병이 찾아왔으니 더 신경을 쓰고 더 자신을 돌보는 계기로 삼았다. 인생의 결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것이다.

필자도 상담할 때 보면 힘든 운세가 몰려오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쉽게 주저했으며 시간이 가면서 해결될 일에도 크게 낙담하고 정말 크게 좌절하는 경우를 보았다. 부처님은 너무 편히 살기를 바라지 말라고 한다. 고난이 있으면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을 오르려면 비탈길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산에도 힘든 길이 있는 법이다. 소나기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비바람이 멈추질 않는 시기 그런 운세의 길이 있다.

누군가는 힘든 일을 디딤돌로 만들어 더 높이 뛰어오른다. 반대로 누군가는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만다. 세상살이의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라고 한다.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화두를 던져주고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무병장수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병장수도 전화위복이다. 시련은 때로 힘겨운 일에 대한 맺집을 길러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세로로 고난도의 열대매출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세로로 고난도의 열대매출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1				7	4
4		1	9	6	
	7		3		
	2	6	4	1	
		4		7	
	8	3	7	6	
			9		2
		8	7	3	
2	5				6

6	9	8		4	
4		3		5	9
		5		7	4
		1			
	4		8	2	9
					1
1			7		4
3			5		6
		9		3	5
				2	

9	8	6	1	7	8	2	9	7
9	7	1	8	2	2	8	9	6
2	7	8	9	6	5	1	7	8
2	9	7	2	1	8	6	8	9
8	8	2	2	9	6	7	1	9
6	1	5	7	8	9	8	2	2
1	6	2	9	8	7	9	2	8
8	9	9	6	2	1	2	8	7
7	2	8	8	9	2	5	6	1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8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